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4호 현대불교  
2008년 1월 30일(음력 12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딱치는 대로 그대로!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남):** 스님이 가르쳐주신 도리와 스님이 애롭게 가르치신 그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가르치신 도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도리에 접하기 전에 저는, 남들은 겉으로 편안하게 보인다고들 했지만 제 속으로는 적과 동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려서 상대의 부딪혔을 때는 물론이고 저 혼자 있을 때도 늘 속으로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 현재는 제 마음속에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내지 않고 있는 것을 스님께, 이 도리에, 또 저 자신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럽고 깨끗하고 이걸 너무나 또 잘 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볼까 하고 고통 국물에 바퀴벌레가 녹아 있어도 그것만 건져내고 먹어봤고, 퐁파리가 빠져서 뱅뱅 돌아도 그걸 건져내고 먹어봤습니다. 그전에는 밥 위에 파리가 조금만 앉았다 가도 몇 손가락을 털어야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등등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욕심이 많아 서인지 어느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언제까지 이 공부할 해야 되나 하는, 갑작스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관둬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앞에 스님 법문을 받아보고 더 질문을 드릴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에 나왔으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이 공부를 해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한편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한편에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가르쳐주세요.

**스님:**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탈함도 없겠죠. 지금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듯이,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으로 공(空)했었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다 놓는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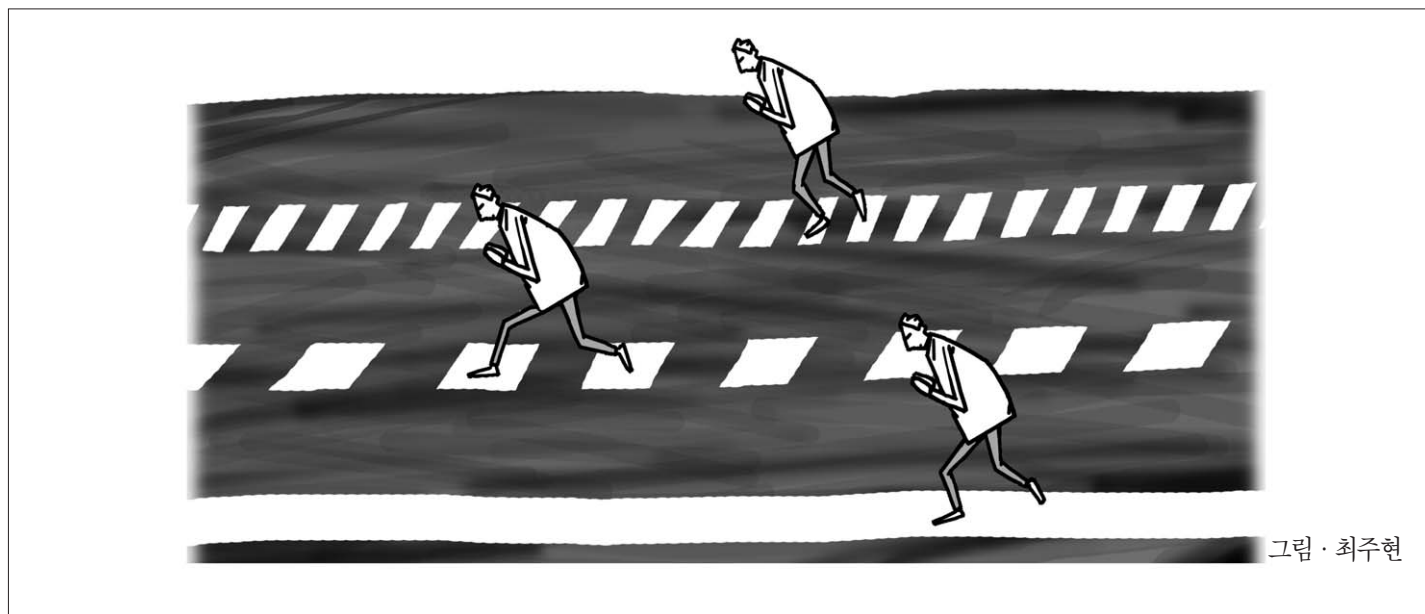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나 더할 것도 없고 탈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네가,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룰 수가 있고, 너만이 화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화복을 도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압습하게 보진 마십시오, 포괄적인 자기니까요.

**질문자(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고 관여하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한 번 있었습니까. 그 둘을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세요.

**스님:** 아이, 생각해보세요, 글썽,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아휴! '네놈으로 인해서, 네놈으로 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뭐든 놓이 거기 개재하는 게 아니니깐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놓이, 그놈이 지금 모두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여러번한테 가르칠 때 부처님더러 오늘 조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놈이 한 거니까 제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요거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해놓고 밥을 먹어서 배 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씻어서 밥을 해서 다 해놓고 손가락으로 떠 먹을 때, 떠 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때 떠 먹을 때 맛을 알죠. 이런 해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번 선의 칼을 뺐 거와 같이 생각하고 절대로 그냥 길 수는 없다고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네가 일을 저질러서 전부 어떻게 살게 만들어놓고 또, 내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몸부림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소릴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딱치는 대로 그대로 해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릴까? 회답이 아주 말씀하게 씻어지진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씀하게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잘

그렇게 해보신다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잘될 겁니다.

**질문자(남):** 불법과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도반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풀이켜보면 한마음 주인공을 처음 접하는 초발심 때는 믿고 맡기는 것이 상당히 쉬웠고 그 결과 일이 돌아가므로 신바람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초발심 때가 지난 때는 믿고 맡기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의정도 생기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몽쳐진 현재 '나' 때문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공부가 잘 안되는 것도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공부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을 겨울 삼아서 습이 나오는 대로 되놓고 있습니다. 나의 습은 심아와 같이 깊어 청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얼마만큼까지 가야 되는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수억겁 쌓인 죄업이라도 한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다시 한 번 업이 녹는 도리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지금 말씀하고 마이클을 놓고 지금 이렇게

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니까? 그거를 그렇게 들었다가 놓고, 제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니까?

**질문자(남):** 저입니다.

**스님:** 그렇죠? 그런데 자기인 거를 변연히 알면서 자기 탓이라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기 탓이라고 합니까?

**질문자(남):** 모든 가르침을 받아보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르고자 노력을 합니다. 어느덧 예전부터 쌓아온 습이 순간순간 나올 때는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어느 한 가지 경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습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깨쳐서 맡기고 되놓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하나하나 습이 없어져 가면서 내가 도반들과 더불어서 청정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때면 기쁨도 맛봅니다. 물론 스님께서는 테이프에 입력되어진 모든 습을 다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스님:** 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활할 때는요. 지쳐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닦는 것을 그대로 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고서 또 그냥 생활이 그걸 끊어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있는 동물이란 어떠한 거든지 보면, 들으면,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고 좋고 그것만 아니까, 정히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또 나쁜 거를 불의에 당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든 게 행하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아, 이 주인공 놓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

26면으로 계속

시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 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아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시찰 CCTV 설치



시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기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원뻐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대한한약학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71004-총-1788호 (광고)

중정환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어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중에서도 오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輕症), 중중(重症), 중중(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진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중(重症), 중중(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환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과교수)

중정환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